

◆ 북미

- 미국 보건의료비 지출, 2조 달러 돌파
- 환경친화적 건축을 장려하는 미국 보험사들
- 미국, 동성애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된 교회

◆ 유럽

- Lloyd's, 칠레에서 국제교역부문(MAT)관련 보험영업 허가
- 2008년 재물보험의 재보험시장 연성화 지속
- 세계경제포럼, “글로벌 리스크 2008” 발표

◆ 일본

- 손보재팬,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340억엔의 지급준비금 적립
- 상위 손보사들 2007년 12월말 자동차보험 영업실적 정체
- 토교해상,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

◆ 중국

- 빅3 과점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 중소보험회사
- 핑안보험공사 해외투자로 1.2억 유로 손실
- 중국 최초의 보험대리기구연맹 출범 눈앞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미국 보건의료비 지출, 2조 달러 돌파

- 2006년 미국의 보건의료비 지출(national health spending)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발표함.
-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Medicare의 의료비는 2006년부터 처방의약품도 보상하게 됨에 따라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.
- 개인의료보험 지출은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인 Medicaid의 의료비는 제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음.
- 또한 사업자에 의한 보건의료비 지출은 5.7% 상승하여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.
- 종합해보면 2006년 미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2005년에 비해 6.7% 증가하였고, 상품 및 서비스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%를 나타냄.
- 2006년 처방 의약품의 소매 지출은 전년보다 8.5%증가한 2,16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Medicare에 의한 처방이 늘어났기 때문임.
- 또한 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5.9% 늘어나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요양원(nursing home)에 대한 지출은 3.5% 증가를 기록함.
- 지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줄고 사업자에 의한 의료비 지출 비중은 25%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
(New York Times, 1/8)

□ 환경친화적 건축을 장려하는 미국 보험사들

- 미국의 두 보험사는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나 설비, 조망 등에서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보험("green" insurance)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음.
- 그 중 하나인 Allianz 계열의 Fireman's fund는 지난 10월 산불로 인해 2,200채 가량의 집들이 파괴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추가비용 없이 "green" insurance 프로그램을 제공함.
- AIG 계열의 Lexington 보험사는 동부해안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 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2008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임.
- Fireman's fund의 관계자는 고객들이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와 기온상승으로 인해 빚어지는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,
-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 보험상품들은 향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함.
- 화학페인트 사용을 줄이고 대나무 재질의 마루를 만드는 등 Fireman's fund가 제공하는 친환경 업그레이드는 일반적인 건설비보다 15%~30% 가량 비쌘.
- Lexington 또한 그들의 친환경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가계종합보험보다 2%~3%가량 보험료가 비쌀 것으로 예상함.
- 비록 지금은 친환경보험의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나 시간이 지나면 친환경 기준에 의해 지어진 주택 소유자들은 리스크가 작을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보험료 할인이나 신용도 상승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.
- 이러한 혜택은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형태로 이미 자동차보험에 적용되고 있음.
- 그러나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보험상품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는 이른 것으로 보임.

(Insurance Journal, 1/10)

□ 미국, 동성애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된 교회

- 미시간주 Adrian 지역에 있는 West Adrian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종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됨.
 - 교회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는 Brotherhood 상호보험으로 기독교의 한 교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9개 주와 워싱턴 DC에 있는 30,000개의 교회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 - 보험사는 질문지에서 나타난 교회의 태도가 재물의 파괴와 다른 교회와의 소송가능성을 높인다고 거절 이유를 밝힘.
 - 과거, 사회적/정치적 갈등과 관련되어 발생한 구체적인 파괴행위의 결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사례는 종종 있어 왔으며 특히 남부지방의 흑인 교회들에서 많이 발생하였음.
 - 그러나 이번 경우는 과거와 달리 교회의 태도에 반대하는 파괴적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부된 드문 경우임.
 - West Adrian교회의 John Kottke 목사는 그가 아는 한 교회와 신도 그리고 교회의 상위 조직에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말함.
- 이에 대해 Brotherhood의 대변인은, 모든 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, 보험사가 위험을 담보할지 말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.
 - 또한 그녀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로 인해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도 때문에 교회가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경우는 있었다고 주장함.
 - 미시간과 인디애나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법이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무엇을 담보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.
 - 그러나 해당 교파의 관계자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함.

(Wall Street Journal, 1/8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Lloyd's, 칠레에서 국제교역부문(MAT)관련 보험영업 허가

- Lloyd's는 최근 칠레의 보험부문 규제변화를 계기로 동 사가 칠레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첫 번째 외국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.
- 칠레와 EU간에 체결된 2007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, 남아메리카 국가의 보험규제기관인 SVS(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)는 MAT(해상, 항공, 수송) 보험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였으며,
- Lloyd's는 법규 제197조에 따라 칠레에서 MAT관련 원수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힘.
- 197조의 제정 전에도 일반국민이나 회사는 외국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었으나, 외국보험사나 중개회사는 칠레 내에서 원수사업을 위한 대리인 혹은 브로커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사의 원수보험 언더라이팅은 불가능한 체계였음.
- 그러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칠레 당국은 Lloyd's를 “허가받은 외국보험사”로 지정함으로써 국제해상 및 수송보험, 국제 기업성 항공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선박, 기체, 적하, 배상책임보험 등의 인수가 가능하게 됨.
- Lloyd's는 칠레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.
- 또한, 탈규제화가 진전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, 라틴아메리카에서 2번째로 높은 8.8%의 보험료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칠레 보험시장에서 브로커나 신디케이트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.

(Insurance Journal, 1/7)

□ 2008년 재물보험의 재보험시장 연성화 지속

- Guy Carpenter는 발간물 “Global Reinsurance Review January 2008”을 통해 2008년과 그 이후의 글로벌 재보험산업에 대한 가격산출과 시장조건을 이끄는 주요 트렌드에 대해 기술하였음.
 - 동 보고서는 재물부문의 거대재해재보험 갱신요율이 전체적으로 9% 내외로 인하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,
 - 향후에도 재보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, 대형 재해손실이 없었다는 점이 전체적인 재보험시장 연성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밝힘.
-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.
 - 세계적인 재물보험 요율은 인하 추세 지속 : 2008년 1월 1일 갱신된 요율이 평균 9% 인하되었음.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평균 10%, 영국은 7.5%, 유럽은 7% 인하됨.
 - 비교적 낮은 대재해손실 : 2007년에 진도 7이상의 4번의 지진과 5번의 허리케인, 북유럽의 폭풍, 영국의 홍수, 호주의 폭풍 및 캘리포니아와 그리스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험손실을 기록하여 재보험자들의 수익을 강화시켜 줌.
 - 서브프라임 시장붕괴 효과 :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는 재보험자에게 우려했던 만큼의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는데, 재보험회사들의 보수적 투자성향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음.
- 동 사의 관계자는 “2007년에도 사고빈도는 높았으나 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재무지표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”고 밝혔으며, “2008년에 대형재해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2009년까지 요율 인하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, 대지진, 홍수, 폭풍 등의 가능성은 시장상황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다”고 우려를 표함.

(Insurance Journal, 1/3)

□ 세계경제포럼, “글로벌 리스크 2008” 발표

-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경제포럼(WEF)은 최근 발표한 "글로벌 리스크 2008"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금융시장 혁명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.
- 보고서는 4가지 이슈를 강조하였는데, 그 중 첫 번째는 금융리스크로 1년 내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의 금융부문이 글로벌 경제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정상적 시장상황에서 안정적 리스크 분배가 가능했던 현행 금융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, 유동성 관리, 리스크 평가 및 예방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함.
 - 또한, 2007년 시장혼란에도 불구하고, 금융시장은 글로벌 리스크의 다양성을 경감시키고 이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금융리스크 위험경감의 핵심열쇠는 금융시장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더 나은 국가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함.
 - 대재해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자본제공 수단인 ILS(insurance-linked securities; 보험연계증권)와 같은 신시장의 빠른 전개 등 리스크 경감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,
 - 강풍 및 지진으로부터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발행된 초기의 “cat bond”에서 시작하여, 현재 ILS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총 채권 발행액이 34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,
 - ILS는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날씨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금융수단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밝힘.
- 그 외에도 점점 복잡한 정치적·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안보, 무역장벽 축소에 따른 과도한 공급망(hyper-optimisation of supply chains)으로 인한 위험의 변동성 증가, 유가상승 등의 에너지 문제가 글로벌 리스크로 대두된다고 설명하였음.

(Swiss Re, 1/8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손보재팬,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340억엔의 지급준비금 적립

- 손보재팬은 11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보증보험으로 최고 3억 달러(340억엔)의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발표함.
 - 이 때문에 2007년 3분기에 340억엔의 보험금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음.
 - 일본의 보험회사가 서브프라임 관련 보증보험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.
 - 이에 따라 손보재팬은 2007회계연도의 순이익 전망을 수정하였으며, 경상이익은 800억엔(종전 1000억엔), 당기순이익은 500억엔(종전 630억엔)으로 각각 축소되었음.
 - 손보재팬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담보부증권(MBS)을 재 증권화한 부채담보부증권(CDO)에 원금손실이 났을 경우 원본 상환의 부족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음.
- 손보재팬의 보증금액 합계는 2,350억엔으로 11건의 CDO를 보증하고 있으며, 이 중 MBS의 신용등급 수정이 일정한 기준을 하회할 경우 투자자의 선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‘청산 조항’이 붙은 하나의 보증건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.
 - 이외에 청산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은 2건(보증액수 280억엔)이 있지만,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.

(마이니치신문, 1/11)

□ 상위 손보사들 2007년 12월말 자동차보험 영업실적 정체

- 도쿄해상니치도(東京海上日動)화재보험(이하 도쿄해상) 등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2007년 12월말 영업실적이 집계되었음.
 - 수입보험료는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이 정체했기 때문에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화재보험을 제외한 5개 회사가 감소하였음.
 - 자동차 판매 대수의 정체와 보험금 부담 미지급 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함.
 -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보험금 부담 미지급 문제로 2006년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2006년 업무 정지를 받은 손해보험재팬도 미미한 감소에 그침.
-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인은 수입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침체하였기 때문임.
 - 자동차보험은 2007년 신규 차량판매 대수가 전년대비 7.6%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음.
 - 자동차 신규 차량의 판매 침체로 신규 보험계약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유가 급등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였음.
 - 다만, 도쿄해상, 손해보험재팬,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3개 회사는 2008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자동차보험상품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상품 투입을 계기로 영업실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.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함.
 - 화재보험도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을 제외한 5개 회사에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음.
 - 특히, 작년 6월의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신규 주택의 착공 주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주택 구입 시에 계약하는 장기 화재보험의 판매가 감소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/10)

□ 도쿄해상,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

- 도쿄해상니치도(東京海上日動)화재보험(이하 도쿄해상)은 상품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간소화한 자동차보험을 5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 - 현재 3종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2종으로 통합하며 중복된 특약을 일원화하거나 판매실적이 미미한 특약을 폐지하는 등 현재 총 128종의 특약을 거의 절반인 총 75종으로 축소시킬 계획임.
 - 또한 자동차 보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 개인 보험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한 특약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임.
- 도쿄해상은 상품간소화 추진으로 대리점이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고,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- 한편,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체 교통수단이나 긴급 숙박지의 예약 등을 안내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함.
 - 또한, 보장내용이 기재된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이나 사고발생 시의 유의점 등이 기재된 '계약 안내서'를 새롭게 교부하며 자동차보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 페이지에 '자동차보험 안내 데스크'도 개설함.
- 도쿄해상은 보험금 부담 미지급 문제 재발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약 630억 엔을 투입하여 상품,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 - 구체적으로는 동일 명칭인 것에도 불구하고 보험종목에 따라 다른 보장의 특약이나, 상품별로 다른 보험료 납입방법을 전 상품으로 일원화함.
 -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 부담 미지급 문제를 계기로 보험상품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 - 손해보험재팬이 2월 간소화한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, 미츠이스미토모해상도 간소화한 자동차보험을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판매할 계획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1/8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빅3 과점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 중소보험회사

- 강자가 더욱 강해지는 시장법칙이 중국 보험업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, 빅 3의 경우 시장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, 중소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과점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 증자에 힘쓰고 있음.
- 2008년 1월 2일, 하이강생명(海康人壽)이 등록자본금을 8억 위안에서 9억 위안으로 증액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1월 3일에는 렌타이메트로생명(聯泰大都會人壽)이 자회사로 보험자산투자회사 설립인가를 받았음.
- 또한 허쥔생명(合衆人壽)은 보감위에 신청한 11억 위안의 후순위채 발행 허가를 취득하였음.
 - 허쥔생명의 경우, 이번에 발행되는 11억 위안의 후순위채가 타이핑양생명(太平洋人壽), 타이강생명(泰康人壽), 중국생명(中國人壽), 민성생명(民生人壽) 등에 이어 생명보험 회사로서는 다섯 번째로써, 매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음.
 -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채권 발행은 자본금 증자나 지불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발행되는데, 허쥔생명의 경우 지난 해 이탈리아 Eurizon Financial Group과 일본 태양생명 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불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음.
 - 이에 대해 허쥔생명 관계자는, 2005년 회사 설립 초기에 이미 전략적으로 계획된 사항이며, 회사의 중장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음.
 - 동 사는 자본금 확충과 후순위채 발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보험시장 2위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보이고 있음.

(화사시보, 1/13)

□ 핑안보험공사 해외투자로 1.2억 유로 손실

- 지난 해 중국핑안보험공사(中國平安保險公司)의 푸통그룹(富通集團)에 대한 18.1억 유로(인민폐 약 200억 위안) 투자는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, 최근 발행된 중진증권(中金證券)의 보고서는 푸통그룹에 대한 투자가 핑안그룹 전체 투자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.
 - 이는 푸통그룹에 대한 투자금액이 핑안보험 총자산의 3%에 불과하고, 투자목적 역시 경영권 확보가 아닌 단순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임.
- 핑안보험은 현재 푸통그룹 지분 4.18% 보유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핑안보험은 푸통그룹 측에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.
 - 또한 경영권을 확보한다고 해도 핑안보험과 푸통그룹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임.
- 현재 푸통그룹의 주가수익률은 6.3배, 주당순자산율이 1.14배로, 핑안보험은 18.1억 위안을 투자하여 1.2억 위안의 손실을 보고 있음.
 - 하지만 핑안그룹 관계자는 푸통그룹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.
 -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은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손익보다는 미래 주식 매각 시점에서의 손익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음.

(제일재경일보, 1/11)

□ 중국 최초의 보험대리기구연맹 출범 눈앞

- 지난 해 4월 24일, 보험중개 세미나에서 보감위 주석 우땡푸 (吳定富)가 "보험중개기구의 전국적인 판매 및 서비스망 구축과 함께 보험중개회사의 그룹화와 중대형 보험중개회사의 육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." 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보험대리기구 연맹은 곧바로 설립에 착수되었음.
- 업계에서는 이번에 보감위로부터 보험대리기구연맹 설립 허가가 떨어질 경우, 보험중개회사의 주식시장 상장 허용 조치에 이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지원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.
- 장쑤화방(江蘇華邦)보험대리유한공사 이사회장은 저장푸양궈통(浙江富陽國通)보험대리유한공사, 쓰촨즈원 (四川志遠)보험대리유한공사 등 12개 보험대리기구가 난징(南京)에서 중국 최초의 보험대리기구연맹을 설립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
- 동 사항에 대해 “전략합의서와 투자동의서가 모두 체결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보감위의 관련규정이 시행되는 것 뿐이다”라고 최근 언급하였음.
- 지난 해 보감위는 중국 보험중개회사인 파화(泛華)보험서비스그룹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했음. 이와 함께 중국 국내에서는 화강(華康), 쑹허(衆合), 파화 등 3개 보험중개회사가 국내외 투자회사로부터 각각 2,500만 달러, 1,000만 달러, 1.5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함.
- 2007년 9월 말 현재 중국 보험중개시장에는 중개기구 2,297개, 보험대리인(생활설계사) 약 186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중개 시장을 통해 거수한 수입보험료가 4,288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80.5%에 이르고 있음.

(중화공상시보, 1/11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6년말	07.12.28(금)	08.1.4(금)	08.1.11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4.92	5.74	5.83	5.52	-0.31
	美 10년국채	4.71	4.08	3.87	3.79	-0.08
	英 10년국채	4.73	4.56	4.41	4.42	+0.01
	日 10년국채	1.68	1.51	1.48	1.43	-0.05
주가	韓 KOSPI	1,434.46	1,897.13	1,863.90	1,782.27	-4.38%
	韓 KOSDAQ	606.15	704.23	719.25	699.24	-2.78%
	美 DJIA	12,463.15	13,365.87	12,800.18	12,606.30	-1.51%
	美 Nasdaq	2,415.29	2,674.46	2,504.65	2,439.94	-2.58%
	英 FTSE	6,240.90	6,476.90	6,348.50	6,202.00	-2.31%
	獨 DAX	6,596.92	8,067.32	7,808.69	7,717.95	-1.16%
	佛 CAC40	5,541.76	5,627.25	5,446.79	5,371.41	-1.38%
	日 Nikkei225	17,225.83	15,307.78	14,691.41	14,110.79	-3.95%
	中 상해종합	2,675.47	5,261.56	5,362.91	5,484.68	+2.27%
	대만 가권	7,823.72	8,396.95	8,221.10	8,029.31	-2.33%
	홍콩항생	19,964.72	27,370.60	27,519.69	26,867.01	-2.37%
환율	원/달러	929.60	938.90	938.90	935.60	-3.30
	원/100엔	781.83	825.04	856.86	853.92	-2.94
	엔/달러	118.90	113.80	109.57	109.56	-0.01
	달러/유로	1.3148	1.4613	1.4742	1.4797	+0.0055
	위안/달러	7.8135	7.3179	7.2729	7.2714	-0.0015